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복 희(가톨릭대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가족건강성이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다수 현대인은 오랫동안 학교생활에 적응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성인 이후에는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요즘 많은 수의 초, 중, 고,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학교생활적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3년 2월 천안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545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한익(2007)이 변안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아동이 지각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거부적 양육태도 7문항, 애정적 양육태도 7문항, 과보호적 양육태도 8문항으로 총 22개 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각각 .78, .82, .64이고, 전체는 .84이다. 가족건강성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개발한 척도로 총 34개 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97이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Highrower(1986)의 척도를 송미원(1999)이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각각 8문항씩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89이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은 모두 중간 수준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둘째,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가족건강성, 애정적 양육태도와는 .65와 .52로 유의미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거부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양육태도와는 -.35와 -.16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가족건강성이 55%, 애정적 양육태도가 14%, 미취업 모가 7%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가족이 건강하다고 느낄 때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애정적으로 양육한다고 느낄 때 잘 적응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보다는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일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건강성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를 강화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특히 취업한 어머니에 대한 자녀양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